

#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류경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Ryu, Kyung Hee*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researcher worked with 100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o as to inquire into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life maladjustment, relying 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The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 1) The research shows that to look into school life maladjustment on the basis of analysis models including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and family relationship variables in addition to family background variables offers more explanatory power.
- 2) Of all the variables, parent relationship variables turned out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s on maladjustment to teacher relationship and learning activity areas among the subordinate areas of school life maladjustment.
- 3) Of all the variables, family's physical variable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maladjustment to regulation-keeping relationship and opposite sex relationship among the subordinate areas of school life maladjustment.
- 4) Of all the variables, sibling relationship variable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maladjustment to friendship among the subordinate areas of school life maladjustment.
- 5) Parent relationship variables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total school life maladjustment followed by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Ryu,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641-773, Korea. Tel: 82-55-279-7652 Fax: 82-55-279-7650 E-mail: ryukh@sarim.changwon.ac.kr

family physical environment, structural environment,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cultural environment and residential variables in the right order.

**주제어(Key Words):** 학교생활 부적응(school life maladjustment), 교사관계(teacher relationship), 학습활동 영역(learning activity areas), 규칙준수관계(regulation-keeping relationship)

## I.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적응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여 한사람의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김현주, 2000). 그러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70%이상이 '흥미 없고 적성에 맞지 않은 수업'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국민일보, 1997). 통계청 조사에서는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02a).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불만과 어려움 호소는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이경은, 1998) 현상으로 표출된다.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Dusek, 1987)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 및 불만족을 호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앞선 세대로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이해와 배려 깊은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청소년들을 문제 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김준호,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은 청소년이 성공적인 정

체감을 획득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장소로 학교 생활의 적응이 이러한 가정의 영향에 기초한다. 심각한 가정불화, 불충분한 애정과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 태도 등과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협하여,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가정에서 성공적이면 대부분 학교에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Fraser, 1996; 오수연, 재인용, 1999).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족원수,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수입, 부모 결혼상태 등의 가정특성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고(정유진, 1999), 그 외 가족기능에 따라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이혜령, 2000),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볼 수 있다(배숙진, 199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정특성 변인과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 등의 변인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을 뿐, 가족 배경 특성, 가족관계, 가정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연구는 수행되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발생원인을 과거에는 단순히 결손가족이나 빈곤가정과 같이 가정의 구조적인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현재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양친과 함께 사는 중류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로 보편화되며 확산되고 있어서(최영자, 1999). 학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나 상대적으로 학교 부적응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부적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배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파악함으로써, 가족적 관점에서 학교생활에서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태인(1995)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요인을 학교생활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업부진, 또래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교사와의 갈등관계, 이성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으로 나누었고, 홍문균(1996)은 학교생활만족도의 요인을 교사요인, 급우요인, 이성요인, 친로요인, 학업요인, 교체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Halleck(1967)은 학교생활내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을 학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 급우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일, 담임 및 교과목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싫은 과목과 어려운 과목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일, 학교생활에서 오는 열등의식 등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영역을 크게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영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천혜숙(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약 42%가 교사와의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며, 교사의 선

입견 및 편견, 폭언 및 체벌, 무관심 등으로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처벌 경험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43.4%)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응답자의 27.4%는 교사들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처벌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정지인, 1997), 차별 대우, 심한 간섭 등이 교사와의 불만족스런 관계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곽방희, 1986).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학생과 교사의 원만치 못한 관계를 들 수 있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 의사소통 기술 부족, 권위적인 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해 전문적인 이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지인, 1997).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제도이며, 인간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다루는 사회적 장소이며 기관이다(이성희·이경은, 1998).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은 학습뿐 아니라 학생의 성격형성, 태도 및 행동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박용현, 1983). 청소년들과 접하는 교사들은 청소년의 학교경험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과 좌절을 증가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권이종, 1996). 청소년들은 표면상으로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심층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심층적으로 될 때에 학생들은 마음의 안정을 제공받아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김종서, 1983).

두 번째로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치감을 갖게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끼고(McGuire & Weisz, 1982),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즐겁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박현선, 1999). 이와 반대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

등적이거나 적절한 관계형성 능력이 결여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문형준, 1999). 또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45.4%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9%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 외 4인, 2001). 고등학교의 계열별 폭력 실태를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은 6.5%, 폭력을 당한 피해경험은 전체의 4.4%로 가해 경험보다 다소 적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을 볼 때 폭력 피해를 당했던 청소년 중 53.9%가 폭력 피해 여부를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6.1%만이 폭력피해 여부를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해 여부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59.1%가 학업량에 대해 '매우 과중한 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입시만을 위한 과도한 학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계선자 외 4인, 2001), 수능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전까지 속출하고 있다(조선일보, 2002b). 청소년 관련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와 성적이고 그 다음이 진학과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김기하(199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학습 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부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시행된 학생생활·의식 실태조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량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업량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43.9%가 학습량이 대체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58.5%가, 실업계 고등학생은 46.2%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

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네 번째 이성관계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5.5%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의 이성교제 비율을 보면 인문고생은 40.3%, 실업고생은 53.5%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남학생의 경우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지식이 부족하거나 순결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김창대 외 3인, 1994).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짜사랑, 삼각관계, 질투 등 의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창대 외 3인, 1994). 남학생들은 일반적인 여자 전체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고민을 하는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구체적인 관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창대 외 3인, 1994). 이성친구를 사귀게 되는 동기는 남녀 학생 모두 '학원'과 '친구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 혹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응답한 결과도 조사대상자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성정, 1996), 이성교제 시 100일 이내 성 행동을 경험하고 있었다(이정은, 1998).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 준수관계에서는 학교처벌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에 가기 싫었던 요인으로 학교규칙에 얹매이기 싫어서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인, 1997). 또한 2001년도 조사에서도 중고생 53.5%가 지난 한 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이유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교칙(벌칙)을 지키기 싫었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규칙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01). 한편

규칙준수 상황을 살펴보면, 김미하(1989)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직업지위,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의 학생보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 영역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영역, 규칙준수 관계, 이성관계로 하였으나, 각 하위영역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들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적응.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들 중에서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배경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친이 생존하는 청소년일수록(이강선, 1999; 최지은·신용주, 2003),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일 때(이강선, 1999)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순, 1996; 최지은 외 1인,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인 변인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별거 등의 극단적인 갈등의 결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부재, 또는 갈등과 무관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심리적지지 혹은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의 가족구성원의 부재와 같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의 이혼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행에 영향을 주고

(Needle et al, 1990), 부모가 맞벌이로 인하여 청소년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의 많은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Dusek, 1987).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녀들과 남편은 보다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다(Hoffman, 1979, 1980; Kagan, 1980). 이재철(1994)의 연구에서도 결손가족과 일반(정상)가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결손 가족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에 의한 양친의 무기력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이 방임과 폭력을 파생시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수, 1993; 김주홍, 1993).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화가 갖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간에 화합이 안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선애, 1995; 김준호·김순형, 1995; 정유미·김득성, 1998; Shagle & Barber, 1993)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변인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청소년의 상당비율이 청소년기로 전환하면서 일상적 가족생활 영역에 대해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Montemayor, 1982, 1983, 1986; Steinberg, 1981).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행동이 부모의 배척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자의식 행동이 증가하므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다(Callan & Noller, 1986; Gecas & Seff, 1990; Peterson & Strivers, 1986; Savin-Williams & Small, 1986; Smetana, 1989). 실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30.9%가 가정생활에 불만족하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부모님의 이해부족, 잔소리, 간섭,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고(천혜숙, 1999),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은 주로 일상적 가족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났으며, 특히 아버지와 겪는 갈등은 대체로 사소하며 단편적으로 종결되는 반면 어머니와의 갈등은 갖고 오

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옥, 1993). 또한 가족관계와 같은 심리적 환경이 부정적인 가족에서는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수준은 높아지고(최외선·백양희·이미옥, 1997; Robertson et al, 1989), 그런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집착하고 친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친구들의 유혹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주나 흡연, 외박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을 경험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김준호·김은경, 1995; 전병재, 1991).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거절은 낮은 학업성취나 지적인 활동의 부진, 부족한 사회적 관계형성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Weiner, 1970), 부모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 또래집단에 이끌릴 가능성이 낮다(Gottfredson & Hirschi, 1994). 그 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배숙진, 1998; 최지은·신용주, 2003), 특히 아버지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관계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외 1인, 2003).

한편,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간의 관계 외에 형제자매간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로 부모의 편애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과 열등감, 잦은 싸움,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홍 외 3인 2000). 형제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윤정·김경신, 2000),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비교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형제관계에 있어 온정적 태도보다는 무관심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Mussen et al, 1984).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2년 7월 5일 ~ 7월 20일 동

안에 창원시 소재 중학교 4개교, 일반고 3개교, 실업고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교별로 1, 2, 3학년 각 1개 학급씩 총 3개 학급의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총 10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교과목 담당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업시간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1040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하고 10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1) 학교생활 부적응 척도: 김기하(1997)의 60문항으로 된 '학교생활 부적응' 검사 척도의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부적응' 척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영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 당 문항 수는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가족관계 변인: 가족관계 변인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김병석·이명우, 1998; 김창대·이명우, 1995)를 활용하였다.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의 네 가지 축인 호소문제, 문제환경, 관계유형, 발달과업 중에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호소문제 영역의 부모님관계<sup>1)</sup>, 형제관계<sup>2)</sup>에서의 호소내용들을 토대로 가족관계 어려움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부모님관계에서의 어려움(13문항)과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3문항) 등 2개의 하위영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1)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거리감, 소홀, 무관심, 의사소통이 안됨, 지나친 관심과 개입, 부모에 대한 무서움, 부모의 체벌, 구타, 학대, 부모능력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 부모에 대한 반항, 반감,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형제간의 비교로 인한 갈등, 형제간의 불화, 형제간의 소외감, 형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가족환경 변인: 가족환경 변인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김병석 외 1인, 1998; 김창대 외 1인, 1995)를 활용하였다.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의 네 가지 축인 호소문제, 문제환경, 관계유형, 발달과업 중에서 가족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문제환경 영역의 가족환경의 물리적 환경<sup>3)</sup>, 지위환경<sup>4)</sup>, 구조적 환경 5), 문화적 환경<sup>6)</sup>, 가족 내 갈등<sup>7)</sup>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가족환경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족환경에서의 어려움은 물리적 환경(6문항), 지위환경(2문항), 구조적 환경(6문항), 문화적 환경(4문항), 가족 내 갈등(5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가족배경 변인: 가족배경 변인으로는 가족원수, 거주상태, 부모님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취업, 어머니 취업 변인이 있다. 이중 거주상태와 부모님 결혼상태, 아버지 취업, 어머니 취업 변인은 가변인으로, 거주상태는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0, 자택에 거주하지

<표 1> 조사도구의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Alpha
학교 부적응	교사관계(12)	.8304
	교우관계(12)	.7152
	학습활동영역(12)	.8396
	규칙준수관계(12)	.7563
	이성관계(12)	.9118
가족관계 변인	부모님 관계(13)	.7845
	형제 관계(3)	.6449
	물리적 환경(6)	.6699
	지위환경(2)	.8694
	구조적 환경(6)	.6059
가족환경 변인	문화적 환경(4)	.6597
	가족 내 갈등(5)	.6160

않는 경우를 1로 묶어 가변인화 하였고,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를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1로 묶어 가변인화 하였다. 또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하였다. 가족원수,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원 수가 많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사도구들의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 3. 분석방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고,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 3) 가족환경의 물리적 환경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궁핍한 경우인 절대적 궁핍, 자신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궁핍한 가정의 경제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 궁핍, 주거지의 시설상태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지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4) 가족의 지위환경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지위환경, 사회전체의 기준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다른 가정과 견주어 볼 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5) 가족의 구조적 환경은 이혼, 별거, 부모가출 등의 극단적인 갈등의 결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부재, 갈등과 무관하게 맞벌이, 부모사망, 부모 장기 출장, 부모의 늦은 귀가 등으로 가정에 있어야 할 가족이 없어서 심리적 지지나 혹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의 가족구성원의 부재, 부모의 재혼 등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생기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6) 가족의 문화적 환경은 남아선호가 심한 가정,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주로 욕설, 침묵, 애유, 농담 등 불건전한 언어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가정의 전체적인 문화가 지나치게 물질지향적이거나 자기 가족만을 쟁기는 문화의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7) 가족 내 갈등은 고부간, 부모간, 다른 형제간, 부모-자녀간, 기타가족/친척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 청소년 자신에게 심리적 불안, 암박 등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요소를 의미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49.7%, 50.3%로 비슷하며, 중학생이 41.1%, 일반고 학생이 29.1%, 실업고 학생이 29.5%이다. 종교는 불교가 33%로 가장 많았고, 40.5%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수는 4~5명 가족이 75%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72.2%가 자택에 살고 있었으며, 88.1%는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66.7%가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다.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수준은 고졸이 각각 49.9%, 60.1%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만 취업한 경우는 36.3%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의 학교 생활 부적응 정도

청소년의 총 학교 생활 부적응 정도는 1.74로 나타나 4점 척도의 중간점인 2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적응 정도가 1.47~2.11의 점수로 나타나 하위영역별로도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 보여진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활동영역(2.11)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교사관계(1.86), 이성관계(1.64), 규칙준수관계(1.61), 교우관계(1.47) 순으로 힘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N)	%	변인	범주	빈도	%
성별 N=1001	남 여	497 504	49.7 50.3	부모님 결혼상태 N=996	함께 살고 있음 이혼/별거 재혼 사망/행방불명	882 63 26 25	88.1 6.3 2.6 2.5
학교별 N=997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413 290 294	41.1 29.1 29.5	주관적 생활수준 N=997	못사는 편 중간정도 잘 사는 편	129 668 200	12.9 66.7 20
종교 N=995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없다 기타	172 330 52 405 36	17.2 33.0 5.2 40.5 3.6	아버지 학력 N=981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해당 없음/모름	108 499 307 67	10.8 49.9 30.7 6.7
가족원수 N=956	3명 이하 4 ~ 5명 6명 이상	125 756 75	12.5 75 7.5	어머니 학력 N=973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해당 없음/모름	152 602 145 74	15.2 60.1 14.5 7.4
거주지 N=993	자택 전/월세 친척집 및 기타	723 239 31	72.2 23.9 3.1	부모님 직업유무 N=957	아버지만 취업 어머니만 취업 맞벌이 부모 모두 비취업	347 21 573 16	36.3 2.2 59.9 1.7

\* 무응답 처리하여 빈도수가 다름

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입시 부담감이 반영되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기준의 연구들(김준호, 1993; 오미경, 1998)은 가족의 환경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김준호·김순형, 1995; 노성호, 1992; 민하영, 1991; 오미경, 1998; Barnes, Farrell, & Cairns, 1986; Robertson & Simons, 1989)에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실제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물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개 물리적 환경특성만의 영향이기보다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족 내 상호작용에 문제가 초래되어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남숙(1997)도 물리적인 가정환경이 성격형성과 자아 개념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만큼 심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환경 중에서도

부모자녀간, 형제간이라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족배경 변인들(가족원 수, 거주상태, 부모님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아버지 취업, 어머니 취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 있는 변인과 설명력을 파악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환경 변인들(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과 가족관계 변인(부모님 관계, 형제관계)을 차례로 추가 투입하여 그 설명력의 변화와 가족환경 변인과 가족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각 하위영역들 즉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영역, 규칙준수관계,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과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에 제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아버지학력과 어머니학력, 부모님관계와 물리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구조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문화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가족 내 갈등, 물리적 환경과 지위환경,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구조적 환경과 가족 내 갈등, 문화적 환경과 가족 내 갈등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50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 변수들 중에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간에는 .74의 높은 상관이 나타나, 두 변인 중 어머니 학력 변인을 독립변수에서 제외시켰고, 그 외에 .50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회귀분석 시의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통해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하나(박성현, 1989), 회귀분석 결과 이 수치가 1.01~2.33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관련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참고로

〈표 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

변인(문항수)		M	SD
학교 생활 부적응	교사 관계(12)	1.86	0.51
	교우 관계(12)	1.47	0.34
	학습 활동(12)	2.11	0.54
	규칙 준수(12)	1.61	0.45
	이성 관계(12)	1.64	0.64
총 학교 생활 부적응(60)		1.74	0.39

\* 평균(M)과 표준편차(SD)는 모두 문항수로 나눈 평균과 표준편차임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 1)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 원수,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3.8%에서 13.3%로 증가하였고, 주 관적 생활수준, 가족원 수, 거주상태가 여전히 부적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 순으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13.3%에서 16.4%로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 원 수, 거주상태,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의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 변인의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82**	1.00													
3	-.001	.101**	1.00												
4	.008	.124**	.744**	1.00											
5	-.120**	-.259**	-.116**	-.125**	1.00										
6	-.139**	-.212**	-.043	-.071*	.274**	1.00									
7	-.061	-.192**	-.085**	-.055	.147**	.163***	1.00								
8	.008	-.041	.084**	.010	-.102**	-.046	.022	1.00							
9	-.055	-.133**	-.045	-.041	.071*	.136**	.074*	-.005	1.00						
10	.038	-.073*	-.054	-.071*	.026	-.036	.029	.016	.421**	1.00					
11	-.080*	-.382**	-.104**	-.097**	.220**	.282**	.222**	.001	.503**	.280**	1.00				
12	-.048	-.365**	-.141**	-.143**	.218**	.216**	.214**	-.031	.391**	.188**	.635**	1.00			
13	-.027	-.163**	-.075*	-.097**	.146**	.324**	.148**	-.034	.510**	.297**	.547**	.441**	1.00		
14	.000	-.104**	-.042	-.056	.047	.121**	.076*	.005	.518**	.366**	.429**	.355**	.495**	1.00	
15	.018	-.160**	-.063*	-.071*	.102**	.137**	.133**	.016	.568**	.479**	.445**	.390**	.503**	.520**	1.00
M	4.00	3.06	3.94	3.66	0.27	0.11	3905E-02	0.37	20.35	4.69	8.77	2.93	7.61	5.16	7.14
S.D	1.26	0.68	1.33	1.26	0.44	0.31	0.19	0.48	5.28	1.85	2.91	1.46	2.27	1.79	2.23

\*p<.05 \*\*p<.01 \*\*\*p<.001

1: 가족원수 2: 주관적 생활수준 3: 아버지 학력 4: 어머니 학력 5: 거주상태 6: 부모님 결혼 상태 7: 아버지 취업유무 8: 어머니 취업유무 9: 부모님 관계 10: 형제 관계 11: 물리적 환경 12: 지위환경 13: 구조적 환경 14: 문화적 환경 15: 가족 내 갈등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모님관계 변인이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 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환경과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고, 주관적 생활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족원수, 거주상태 순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부모님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으며,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켜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많은 설명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 2)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대 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가족원 수, 주관적 생활수준이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에 포

<표 5>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477	-.097**	-.515	-.104**	-.434	-.088**
	거주상태@	-1.090	-.077*	-1.297	-.092**	-1.189	-.084**
	부모님결혼상태@	.623	.029	-1.045	-.048	-.974	-.045
	주관적생활수준	-1.450	-.158***	-.936	-.102**	-.991	-.108**
	아버지학력	-.103	-.022	-2.52E-02	-.005	-4.46E-02	-.009
	아버지취업@	.469	.015	-.449	-.014	-7.54E-02	-.002
	어머니취업@	9.216E-02	.007	4.231E-02	.003	6.623E-02	.005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338	.156***	.225	.104*
	지위환경			-.219	-.051	-.251	-.059
	구조적환경			.291	.107*	.186	.068
	문화적환경			.349	.103**	.189	.056
	가족내 갈등			.242	.088*	3.899E-02	.014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271	.236***
	형제관계					4.528E-02	.014
$R^2$ (adjusted $R^2$ )		.038(.031)		.133(.122)		.164(.151)	
F값		5,327***		11,900***		12,938***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 = 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 =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합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3.0%에서 20.6%로 증가하였고, 가족원 수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관적 생활수준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변인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 변인이 교우 관계 어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교우관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많고, 가족 내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교우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20.6%에서 22.8%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원수,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 내 갈등 변인의 영향력은 사리지고 부모님 관계 변인과 형제관계 변인이 교우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의 어려움이 클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형제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가족원 수, 부모님 관계, 문화적 환경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406	-.122***	-.450	-.135***	-.429	-.128***
	거주상태@	-.379	-.040	-.583	-.061	-.556	-.058
	부모님결혼상태@	.925	.063	-.597	-.041	-.360	-.024
	주관적생활수준	-.464	-.075*	9.817E-03	.002	-8.11E-03	-.001
	아버지학력	-.112	-.035	-3.31E-02	-.010	-2.27E-02	-.007
	아버지취업@	.198	.009	-.682	-.032	-.435	-.020
	어머니취업@	-.355	-.041	-.395	-.046	-.403	-.047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239	.163***	.188	.129**
	지위환경			-8.91E-02	-.031	-8.01E-02	.028
	구조적환경			.276	.150***	.237	.129**
	문화적환경			.305	.133***	.214	.093*
	가족내 갈등			.277	.149***	.121	.065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8.277E-02	.106**
	형제관계					.302	.134***
$R^2$ (adjusted $R^2$ )		.080(.022)		.206(.196)		.228(.217)	
F값		4.053***		20.081***		19.550***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 = 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 3) 학습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학습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이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4.2%에서 13.1%로 증가하였고, 주관적 생활수준과 가족원 수, 아버지학력이 여전히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외에 아버지의 취업,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이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가 취업하지 않은 집단에서보다는 취업해 있는 집단에서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13.1%에서 16.7%로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원 수, 아버지학력,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은 여전히

&lt;표 7&gt; 학습활동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431	-.082*	-.458	-.087**	-.385	-.073*
	거주상태@	-.602	-.040	-.831	-.055	-.735	-.049
	부모님결혼상태@	1.290	.056	-.628	-.027	-.317	-.014
	주관적생활수준	-1.521	-.156***	-.969	-.099**	-1.023	-.105**
	아버지학력	-.385	-.077*	-.312	-.062*	-.312	-.062*
	아버지취업@	-1.273	-.038	-2.204	-.066*	-1.699	-.051
	어머니취업@	-.345	-.026	-.378	-.028	-.372	-.028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443	.192***	.317	.137**
	지위환경			-.323	-.071	-.332	-.073
	구조적환경			.419	.145**	.310	.107**
	문화적환경			.221	.061	2.091E-02	.006
	가족내 갈등			.134	.046	-.166	-.057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259	.211***
	형제관계					.368	.104**
$R^2$ (adjusted $R^2$ )		.042(.035)		.131(.119)		.167(.154)	
F값		5.845***		11.601***		13.213***	

\* $p<.05$  \*\* $p<.01$  \*\*\*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 = 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 =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 취업 변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변인이 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부모님관계,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주관적 생활수준, 형제관계 변인, 가족원 수, 아버지학력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 4) 규칙준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규칙준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부모님 결혼상태가 정적 영향을, 가족원 수, 주관적 생활수준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 결혼상태에서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보다 더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았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2.8%에서 17.6%로 증

<표 8> 규칙준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376	-.086**	-.396	-.091**	-.335	-.077*
	거주상태@	-.752	-.060	-.991	-.080*	-.909	-.073*
	부모님결혼상태@	1.791	.093**	-.299	-.016	-.254	-.013
	주관적생활수준	-.637	-.079*	-2.26E-02	-.003	-6.41E-02	-.008
	아버지학력	-.193	-.047	-.115	-.028	-.130	-.031
	아버지취업@	.429	.015	-.558	-.020	-.283	-.010
	어머니취업@	-4.54E-02	-.004	-6.71E-02	-.006	-4.85E-02	-.004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487	.255***	.402	.211***
	지위환경			-.296	-.079*	-.321	-.085*
	구조적환경			.465	.194***	.386	.161***
	문화적환경			.288	.096*	.169	.056
	가족내 갈등			3.700E-02	.015	-.112	-.046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204	.201***
	형제관계					2.353E-02	.008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028(.021)		.176(.166)		.198(.186)	
F값		3.859***		16.548***		16.338***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 = 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 =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가하였고, 가족원 수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관적 생활수준과 부모님 결혼상태 변인이 규칙준수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고, 거주상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이 규칙준수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인 경우가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이 어려울수록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17.6%에서 19.8%

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원수, 거주상태,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적 환경 변인의 영향은 사라지고, 부모님관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인 경우가,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지위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부모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변인, 구조적 환경, 지위환경, 가족원 수, 거주상태 변인 순으

〈표 9〉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 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483	-.078*	-.493	-.080*	-.428
	거주상태@	-.881	-.050	-1.117	-.063	-1.028
	부모님결혼상태@	2.338	.086*	.192	.007	.141
	주관적생활수준	9.114E-02	.008	.869	.076*	.826
	아버지학력	-.466	-.079*	-.375	-.064*	-.398
	아버지취업@	.330	.008	-.809	-.020	-.581
	어머니취업@	-4.89E-02	-.003	-8.46E-02	-.005	-5.82E-02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583	.215***	.501
	지위환경			-.193	-.036	-.228
	구조적환경			.321	.094*	.242
	문화적환경			.653	.153***	.548
	가족내 갈등			-9.23E-02	-.027	-.205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213
	형제관계					-.107
$R^2$ (adjusted $R^2$ )		.020(.013)		.121(.109)		.132(.119)
F값		2.726**		10.607***		10.044***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로 나타났다.

### 5)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부모님 결혼상태, 가족원수, 아버지학력이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 결혼상태가 이혼/별거, 재혼, 사망 등의 경우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2.0%에서 12.1%로 증가하였고, 가족원수, 아버지학력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님 결혼상태가 이성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고, 주관적 생활수준,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이 이성관계 어려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12.1%에서 13.2%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원수,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학력,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의 구조적 환경 변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부모님관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이성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문화적 환경,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원수, 아버지학력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 6)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가족배경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모델 1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원수, 거주상태, 아버지학력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부적 영향을, 부모님 결혼상태가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 보다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4.1%에서 21.7%로 증가하였고, 가족원수, 거주상태 변인이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님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학력 변인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사라지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가족배경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 외에 가족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 3에서는 설명력이 21.7%에서 25%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원수, 거주상태,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 모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 변인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인 경우에,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lt;표 10&gt;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가족배경변인	가족원수	-2,173	-.114***	-2,312	-.121***	-2,012	-.106***
	거주상태@	-3,703	-.068*	-4,819	-.088**	-4,416	-.081**
	부모님결혼상태@	6,966	.083*	-2,376	-.028	-1,764	-.021
	주관적생활수준	-3,981	-.112**	-1,049	-.030	-1,260	-.036
	아버지학력	-1,259	-.069*	-860	-.047	-.908	-.050
	아버지취업@	.154	.001	-4,702	-.039	-3,074	-.025
	어머니취업@	-.702	-.014	-.882	-.018	-.815	-.017
가정환경	물리적환경			2,089	.250***	1,633	.195***
	지위환경			-1,120	-.068	-1,212	-.073
	구조적환경			1,773	.169***	1,361	.129**
	문화적환경			1,815	.138***	1,141	.087*
	가족내 갈등			.597	.056	-.322	-.030
가족관계	부모님관계					1,030	.231***
	형제관계					.631	.049
$R^2$ (adjusted $R^2$ )		.041(.034)		217(.207)		250(.238)	
F값		5,657***		21,420***		21,981***	

\*p&lt;.05 \*\*p&lt;.01 \*\*\*p&lt;.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 = 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 =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 = 0, 무 = 1로 가변인화

관계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가족원 수, 문화적 환경,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영역들 중에서도 학습활동영역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 이성관계, 규칙준수관계, 교우관계 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배경 변인 외에 가족환경 변인과 가족 관계 변인을 포함시킨 분석모델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더 많은 설명력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고, 주관적 생활수준,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족원수, 거주상태 순으로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교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 관계와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교사관계에서의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형제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가족원 수, 부모님 관계, 문화적 환경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의 어려움이 클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교우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활동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주관적 생활수준, 형제관계 변인,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부모님 관계,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습활동영역에서의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규칙준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변인, 구조적 환경, 지위환경, 가족원 수,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지위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부모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규칙준수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문화적 환경,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원 수, 아버지학력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학력이 낮을수록,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이성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

경, 가족원 수, 문화적 환경,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거주상태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정의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가족적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 중 학습 활동 면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학교교육제도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학교교육에서 패배하고 소외된 청소년을 양산하고 있으며, 학습에 있어서의 실패감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현 입시체계 및 교육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입시 위주와 성적 중심의 주입식 교육 및 학교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둘째, 청소년들은 학습활동 다음으로 교사관계나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학교 생활에서 교사, 이성 친구와 같이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학교 생활 어려움의 정도도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사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 관계 훈련 프로그램과,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변인이었음을 볼 때, 청소년의 행동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가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릴 때 형성되는 부모자녀관계는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청소년이 어떠한 존재로 인정받는가 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있어서는 개별 청소년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여야 하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탐색과 이해가 필요하고, 부모-자녀관계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넷째,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 영역에서 교사관계와 학습활동에서의 부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관련 변인이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고,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관련 변인은 형제 관계 변인이며, 규칙준수와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관련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살펴볼 때,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의 각 하위영역별로 세분화된 청소년의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고, 또한 각 하위영역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학교생활 부적응을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만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청소년,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돋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변인들도 포함시켜 관련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분석함에 있어 가족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포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조사대상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계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2), 57-72.
- 고남숙(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민일보(1997). '중고생 10명 중 7명 학교생활 힘들어요'. 1월 16일자.
- 권이종(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하(1997).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하(1989). 학교규칙의 내용과 준수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 이명우(1998).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사용자 지침서(종합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선애(1995).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수(1993). 청소년 비행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홍(1993). 한국의 도시화와 청소년 비행의 원인 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3). 청소년의 기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종서(1983). *현대교육론(I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창대, 이정윤, 이영선, 남상인(1994). 청소년 문제유형분류체계-기초연구. *청소년대학의 광장*.
- 김창대, 이명우(1995).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II. *청소년대학의 광장*.
- 김현주(2000). 학교사회사업 도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방희(1986). 학생비행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형준(1999).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청소년상담연구, 1(1), 41-50.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현(1989). 회귀분석. 민영사.
- 박용현(1983). 학교사회. 서울: 배영사.
- 박현선(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사업학회지, 2, 105-125.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수연(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과업중심모델을 적용하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 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1998). 학교생활 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 이경은(1998). 도시중등학교에서의 학교사회 사업 모형 연구. 학교사회사업창간호.
- 이정순(1996). 학생의 가정문화와 문화습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 적응도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인(199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위한 실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김현주, 이호준, 김태성(2000). 가족상담 연구 개발 IV: 청소년기 가족문제와 가족상담의 방향.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예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인(1997).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01). 학생 절반 이상 '자퇴 고려'. 12월 23일자.
- 조선일보(2002a). 청소년 10명 중 6명 학교생활에 만족 못해. 11월 20일자.
- 조선일보(2002b). 수능 성적 비관 여자 재수생 투신 자살. 11월 7일자.
- 조윤정, 김경신(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45-65.
- 채구목(1997).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치유방안-임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27-252.
- 천혜숙(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의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대학의 광장(1996). 청소년 학업상담. 서울: 정민사.

- 최영자(1999).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최외선, 백양희, 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7-40.
- 최지은,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학생생활·의식실태조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문균(1996). 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nes, G. M., Farrell, M. P., & Cairns, A.(1986). Parental Socialization Factors and Adolescent Drinking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27-36.
- Callan, V. J. & Noller, P.(1986). Perceptions of communicative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813-820.
- Dusek, J. B.(1987).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Gecas, V. & Seff, M. A.(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4). A general theor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In R, Ketterlinus & M. E. Lamb (Eds.),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Hillsdale, NJ: Erlbaum.
- Halleck, S.(1967). *Psychiatry and the Dilemmas of Crime*. N.Y., Harper.
- Hoffman, L.(1979). Maternal employment: 1979. *American Psychologist*, 34, 859-865.
- Hoffman, L.(1980).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academic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9, 319-335.
- Kagan, J.(1980). The influence of the family. *School Psychology Review*, 9, 298-311.
- McGuire, K.D.,& Weisz, J.R.(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Montemayor, R.(1983). Parent & adolescents in conflict: 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83-103.
- Montemayor, R.(1986). Family variation in parent-adolescent storm and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5-31.
- Mussen, P. H., Conger,J.J., Kagan, J., & Huston, A.C.(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per & Row.
- Needle, R.H., Su, S.S. & Doherty, W.J.(1990). Divorce, remarriage,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157-169.
- Peterson, G. W., & Strivers, M. E.(1986). Adolescents' behavioral autonomy and family connectedness in rural Appalachia. *Family Perspective*, 20(4), 307-322.
- Robertson, J. F. & Simons, R. L.(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125-137.
- Savin-Williams, R. C. & Small, S. A.(1986). The timing of puberty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342-347.
- Shagle, S. C. & Barber, B. K.(1993). Effects of family,

-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964-974.
- Smetana, J. G.(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33-840.
- Weiner, I.B.(1970).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3년 4월 7일 접수, 2003년 11월 12일 채택)